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멩쟁이학교 입학식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멩쟁이학교 개강여행이 26(월) ~ 29일(목)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에 공동체 제 5차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 지역별사랑방 개강이 3월 8일부터입니다. 방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생일) 권사 가정(생일 감사)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결혼기념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8 호

2024년 2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

「그분은 내려가셨다.

그분은 한평생 내려가기만 하셨다.

강생하심으로써 내려가셨고, 갓난아기가 됨으로써 내려가셨으며, 순명을 통해 내려가셨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추방되고 박해받고 처형됨으로써, 언제나 끝자리에 계심으로써 내려가셨다.

“당신은 초대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시오”

그분은 삶의 잔치에 들어올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몸소 이것을 실천하셨다.」

‘나사렛 예수’의 삶, 곧 가난한 일꾼의 삶을 발견하고 사하라사막으로 떠나 유목민들 가운데 형제로 살아간 샤를 드 푸코(1858-1916) 수사님의 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복음서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읽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키신 위대하신 분.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분.

양 한 마리를 찾아 그 품에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려 봅니다.

그러나, 겿세마네 동산. 그 밤에 달았을 때 예수님은 고뇌를 넘어 고통의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배

선교와 섬김

신으로 은 30냥에 팔려가는 어린양의 모습으로 군중들의 야유와 비난과 모욕 속을 걸어가십니다. 끝내 매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는 머리로 그려보기를 멈추게 되고 가시 면류관의 그 뾰족한 끝에 가슴이 찢려 눈시울이 젖어 옵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가슴 속 깊이 그려보면 커다란 연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더 내려가셔야 했을까. 그 큰 고통을 어찌 감당하셨을까. 왜 그토록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나..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연민해드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상처에도 괴로워하며 나 스스로를 연민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정작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의 그 고통에 대해 얼마나 헤아려 드렸는지 부끄러워 집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보다 훨씬 많이 살아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느날 보게 된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과연 내가 주님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깊이 연민하며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16 254 / 134

기도 : 이승호 집사

성경 : 디모데 전서 1장

제목 :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1. 내용: 선한 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 (What)

<문단구분>

1~2절 인사말

3~7절 디모데에게 부탁한 목적

8~11절 율법의 제정이유

12~17절 사도바울의 고백

18~20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2. 의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Why)

1)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하였다.

2)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선한 양심과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지이다.

3. 적용: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자 (How)

1)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자.

2)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3)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자.

우리 3방이 달라졌어요!

지난 주 3방을 정리했습니다.

첫 날에는 모든 물건을 비우며 중간 중간 쓸 만한 물건이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엄마에게 쫓겨나기는 했지만 꽤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씩 내리는 눈을 맞으며 어제 아빠와 오빠가 미리 분해해둔 장롱과 서랍들을 날랐습니다. 여러 분들과 모두 나르고 난 후 김종필 집사님의 지도에 따라 엄마와 아영이, 이어진 선생님과 함께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영이와 함께 어제 칠 해 놓았던 벽을 한 번 더 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페인트칠은 온 전신에 하얀색 점들을 선물했습니다. 학교 노작복이라서 맘 놓고 칠했더니 심각할 정도로 몸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3방을 바라보니 참 신기하기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오빠의 눈이 내렸다는 말을 들으며 일어나자마자 새 하얀 마당을 구경했습니다. 새하얀 눈을 보며 아름답기도 했지만, 막상 눈을 치울 생각에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오전에 눈을 치우고 장판을 나르는 대신에 오후에 저와 아영이는 페인트칠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장판을 깔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엄마가 만든 스콘을 먹고, 아영이와 저는 교육관 2층 벽 까진 부분들을 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에는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달라진 3방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이 모든 것들에 항상 함께 해주셨던 분들 덕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감사함 또한 느낍니다.

저에게 이 시간들은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정아인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4-16
32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65 : 2-3 인도자
다함께
148, 8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6 : 25-40 설교자
563 새싹사랑방
“ 나는 생명의 떡이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251 인도자
다함께
438(1)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허철영 강춘자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을 찾아서 다시 온 무리. 오병이어 이적 후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배부르고 자 하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말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보다 세리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십시오. 정작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처해진 현실의 삶에 집중하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좇을 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부활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이 끝났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꾸러기들의 마지막 시간은 아주 유쾌하며,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쟁이의 손을 잡고 신나게 졸업식 등장하는 꾸러기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두 등장을 하고,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춤을 멋지게 댔습니다. 너무 잘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졸업증서를 받을 때는 연습한대로 씩씩하게 나가서 멋지게 졸업증서를 받았습니다. 멋쟁이, 어린이의 감동적인 송사와 답사를 듣고, 꾸러기들은 졸업생 대표로 축하와 절로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졸업생들이 나와 각 학교 노래를 부르고, 축도와 함께 힘찬 새 출발을 하며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꾸러기 동생들과 가족들도 졸업식에 찾아와 졸업을 축하해줬습니다. 졸업생도 웃고, 동생들도 웃고, 서로 웃으며 즐겁게 졸업식을 보냅니다. 축하해주는 많은 분들 중에는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쉬움에 눈물이 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헤어질 때는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눠서 큰 아쉬움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지난 주 어린이학교 소식에서 못 전했던 이야기를 마저 전합니다. 2월 17일 토요일에 있었던 두 건의 중요한 행사 이야기. 물론 그 다음 날인 18일에 있었던 졸업식도 매우 중요했구요.

토요일에 있었던 첫 번째 행사는 '사은회'였습니다. 졸업생들과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공연은 앵콜을 여러 번

배움과 가르침

외칠 수 있게 해주었고, 상품이 걸린 댄스퀴즈 시간은 경쟁심을 발휘하게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너무 많이 웃어서 배가 아프다가 이후에 졸업생, 부모님, 교사 모두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2024년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2024년 학교의 큰 그림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올해도 훈훈하게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18회 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에는 유난히 친지 분들과 재학생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입장과 춤, 김민지 어린이의 송사와 이나영 멋쟁이의 답사, 꾸러기들의 답가와 큰절. 모두 대견하고 미소 짓게 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지난 주간에는 마지막 방학 기간으로, 선생님들은 새학기를 위해 학교의 이모저모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 곳곳에 눈이 포근히 덮여있는 오늘은 멋쟁이학교의 입학식 및 개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멋쟁이들은 끝나는 방학에 아쉬워하고, 또 함께 생활하게 될 새로운 멋쟁이들로 기대감을 키웁니다. 또 멋쟁이학교에서 생활을 함께 하게 될 신입생은 낯선 장으로 다가가는 긴장감이 뭉뚱떨지요. 언제나 그렇듯, 처음은 어색하더라도 복된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주로 개강여행을 떠납니다. 2024년 멋쟁이학교의 첫 발걸음을 많이 축하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가정방문

학교에서 2월 마지막 주는 썩이 돌아나기 전의 땅과 같습니다. 보기에 그냥 땅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저런 궁리들과 용솨음칠 생명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맘 때 어린이학교에서 교사들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정방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 기억이 없습니다. 저랑 6살 터울의 큰언니는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던 것도 같고 아니면 TV에서 봤던 걸 착각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만큼 일반적인 학교 가정방문은 아주 오래 전 애긴데 어린이학교는 신, 편입생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이맘 때 가정방문을 합니다.

무림리에 사는 친구들을 빼면 주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의 진흙을 털기 일쑤고, 아예 평소에는 잘 신지 않는 외출용 신발을 특별히 신고 가기도 합니다.

전체 교사들이 우르르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서면 친구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거나 독서를 하던 중이었던 것처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린이와 선생님들 대부분은 그 친구의 방으로 갑니다. 방에서는 앨범도 같이 보고, 친구가 좋아하는 인형, 책, 장난감을 구경하고, 어린이학교에서 사용할 가방과 생활한복 구경도 합니다. 좁은 방에 옹기종기 들어앉아서 이런 저런 수다를 떨지요. 이러는 동안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님과 어린이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요.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학교 설명을 직접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지요.

한두 시간 이렇게 있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아쉬워지는데 '우리 입학식 때 만나자' 하고 다음을 기대하며 헤어집니다. 처음 현관에 들어섰을 때보다 훨씬 친근해진 얼굴로 말이죠.

어린이학교 가정방문은 선생님들이랑 어린이랑 더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나를 보러 오셔서 같이 놀다가 가신 선생님들이랑은 더 친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6장, 421장

성경 : 요한복음 7:11-19

말씀 :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 점차 격화되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더 복잡해지는 형국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갈수록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원한과 적개심만 쌓일 뿐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밝은누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을공동체와 공동생활을 하는 식구들의 건강과 펼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이번 주일에 있을 총회가 하나님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2)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3) 입학과 개교를 앞둔 공동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한 주간동안 날씨가 북유럽 같이 비와 진눈깨비, 눈을 반복하면서 겨울을 놓기 싫은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공동체 마당의 눈을 치우고 물을 빼는 일을 하고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교육관 2층 3방 리모델링 공사를 한 주간 동안 공동식구들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각 사랑방 학교 선생님들은 새학기 준비로 여러가지 일을 처리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새학기를 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